

“생명 살리는 일...골수 기증할 수 있어 기뻐요”



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순천소방서 오성환 소방장

8년전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백혈병 완치돼 건강하시길” 공무원 임용 뒤 35회 헌혈도

전남 순천소방서에 근무하는 한 소방관이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말초혈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하기로 해 화제다.

20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저전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오성환(32) 소방장은 지난 2012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한 뒤 8

년 만에 백혈병 환자와 조치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환자가 알고 있는 백혈병은 유전자 변화가 모두 일치해야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소방장은 골수 기증을 위해 이날 화순의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골수 촉진제를 3번 맞은 오 소방장은 21일 골수를 기증한 뒤 23일 출근할 예정이다.

오 소방장은 “골수 촉진제를 맞으면 몸살 기운부터 시작해 근육통까지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했다”며 “저는 잠깐 아팠지만, 기

증을 받으실 분은 오랫동안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년 전 헌혈할 때 골수 기증을 신청했다가 연락이 없어서 잊고 살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쁘게 기증하겠다고 했다”며 “저랑 인연이 돼서 제 몸의 일부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

오 소방장은 “치료도 힘들지만, 기증을 받는 순간에도 고통이 심하다고 들었다”며 “완치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2011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오 소방장은 35회에 걸쳐 생명나눔 헌혈을 해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제길 세종요양병원 이사장, 전남대병원에 후원금 4억원



광주 세종요양병원 구제길 이사장이 21일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 발전후원금으로 4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구제길 이사장은 이날 불우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의료진 교육·연구비로 3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초당대, 지역 6개 병원과 사회맞춤형 인재 육성 협약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는 지역 6개 병원(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미즈아이병원, 무안종합병원, 목포한사랑병원)과 지난 20일 초당대 본부 3층 회의실에서 사회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커스텀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위기가구에 반찬 나눔



광주시 동구 지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중)가 지역 내 ‘착한가게’와 연계해 중장년층 독거위기가구에 반찬 나눔을 실시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9월까지 2개월 동안 매주 20명씩 대상자를 선정, 밑반찬을 나눠 줄 예정이다.

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전남 99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여수백병원 백창희 병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1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전남 99호이자 여수시 15호 회원이다.

성금은 여수시 복지사업비 및 의료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백 원장은 “2005년 여수 백병원 개원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지만, 이번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위에 소외된 취약계층 분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 호남제주본부, 코로나 확산 방지 노사 공동대응반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1일 9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사 공동 대응반 출범식을 가졌다. 코로나19 노사 공동 대응반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사 공동으로 생활 방역을 일상화하고, 가을 대유행에 선제적 대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인사

- ◆공익법무관
 - ◇전보·파견(송무 담당)
 - ▲광주고검 이재성 ▲ 김성우
 - ◇전보·파견(구조 담당)
 - ▲광주지부 이선우 ▲ 이재득
 - ◇신규 임용
 - ▲광주고검 최순호(송무 담당) ▲광주지부 김 김상오(구조 담당) ▲광주지부 이상근(구조 담당) ▲목포출장소 강민성(구조 담당) ▲순천출장소 송원준(구조 담당)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3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5 고 최숙헌 선수 사망 사건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철인 3종 경기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청문회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출사표(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스푸키즈 3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뽀뽀 친구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아생여정(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5 미스리는 알고 있드(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건건	00 제보자들(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야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30 골렘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0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큐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흥건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8	10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심시일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00 트롯신이 떴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더 캡처	10 M드라마 돈플러스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출동! 슈퍼워스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가 폴리	13:50 EBS 초대석	19:30 최고! 후기심착지
08:00 동등명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와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창장에서 우랄까지 -실크로드의 기억 텐산>
09:30 페파 피그	15:25 레인보우 루비	21:30 한국기행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그해 여름, 울릉도 3부 발길 따라 심한 바퀴>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극한직업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동등명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음 6월 2일 丙寅)

<p>36년생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48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60년생 혼탁한에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72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84년생 불만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딱 잘라서 개선해야 한다. 96년생 쉽게 융합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78</p>	<p>42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54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66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78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90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02년생 행동을 같이 하지 만 마음은 공 발에 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61</p>
<p>37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49년생 대단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만한 정도 아니다. 61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다. 73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 되어질 수도 있다. 85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97년생 차별과 시키지 않는다면 과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83</p>	<p>31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43년생 생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55년생 방범에 따라서 상황이 완이해질 수 있겠다. 67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연 될 수도 있다. 79년생 숙명을 알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다. 행운의 숫자 : 30, 95</p>
<p>38년생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자. 50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62년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74년생 오래 된 인연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당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9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89</p>	<p>32년생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이다. 44년생 지극히 알찬 결과의 산출이 예상된다. 56년생 단단히 마음먹고 있어야겠다. 68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끔씩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힘들던 만큼엔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92년생 비교 해보면 알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7, 92</p>
<p>39년생 목적을 달성 하리라. 51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63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니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권유 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99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9, 79</p>	<p>33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45년생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57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키기 될 것이다. 69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81년생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기대 된다. 93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5, 91</p>
<p>40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이다. 52년생 진귀한 기회가이니 수용하자. 64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76년생 암시하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88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뒤탈이 없다. 00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자. 행운의 숫자 : 22, 96</p>	<p>34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하나까지 않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46년생 쓸모없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58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70년생 길잡이 보이니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82년생 김상이니 하는 일 마다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94년생 징후를 무시하거나 연기한다면 불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77</p>
<p>41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53년생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해지겠다. 65년생 경정하자. 77년생 확실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9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마음 편할 것이다. 01년생 세밀하게 재검토 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6, 88</p>	<p>35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연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47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자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바로 잡아야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71년생 육식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 83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95년생 관계의 소중함을 절실히 통감하게 되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38, 60</p>